



코스피	3137.41 (+10.33)	코스닥	973.22 (+4.59)
금리 (연고액 기준)	1.181 (0.00)	환율 (원/달러)	1116.30 (-3.30) (7일)



[산업]
 LG유플러스
 ESG 경영 박차
 전력 감축시스템 구축
 08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4·7 재보선 출구조사 결과를 바라보며 두손을 들어 환호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오세훈·박형준 당선, 야권 압승

〈서울시장〉

〈부산시장〉

4.7 재보선

지상파3사 합동 출구조사

오세훈 59.0%, 박영선 37.7%
 박형준 64.0%, 김영춘 33.0%
 국민의힘, 서울·부산 석권 예측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7일 부산진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구조사 결과만 보면 국민의힘이 2대 0으로 압승한 셈이다. 다만 실제 개표 시 출구조사에서 예측한 내용과 다를 수 있는 만큼 야권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 산하 방송사공동 예측조사위원회(KEP)가 이날 오후 발표한 공동 출구조사 결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7.7%, 오 후보는 59%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율 격차는 21.3%포인트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김영춘 민주당 후보가 33%,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64%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31%포인트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구조사 예측 결과와 비교할 때 부산시장 여야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높은 셈이다.

여야 격차가 큰 폭으로 나타난 출구조사 결과에 여야 희비는 엇갈렸다. 민

특히 김 비대위원장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비교할 때 격차가 보다 큰 것으로 나온 점을 언급하며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 표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태경 부산시장 보궐선거 총괄선대본부장도 “위대한 부산시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자만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 한번 믿어보겠다고 응원해 준 청년에게 반드시 보답하는 청년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별다른 입장 없이 침묵하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와 비교할 때 격차가 큰 폭으로 패배하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8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출구조사는 서울(50개소), 부산(30개소) 등 모두 80개소에 이르는 투표소에서 입소스주식회사,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 등 3개 조사기관에 의뢰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시한 것이다.

출구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투표에 참여한 매 5번째 투표자를 같은 간격으로 체계적 추출(Systematic Sampling)해 선정했다. 당초 이번 출구조사 결과는 본투표가 마무리되는 오후 8시 정각에 발표할 예정이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 자가격리자 투표 시간을 고려, 투표 마감 15분 후인 오후 8시 15분에 지상파 3사에서 동시 공개됐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삼성·LG, 동반 역대급 실적 갤럭시·생활가전 효과 톱톡

삼성, 1분기 영업이익 9.3조 공시
 LG, 1.5조… 전년동기비 39% ↑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나란히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충격을 무색하게 하는 ‘역대급’ 성적이다.

삼성전자는 1분기에 매출액 65조원, 영업이익 9조3000억원을 달성했다고 7일 잠정 공시했다. <관련기사 4면>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액(55조3300억원)이 17.48%, 영업이익(6조4500억원)이 44.19% 많다. 전분기보다도 매출(61조5500억원) 5.61%, 영업이익(9조500억원) 2.76% 늘었다. 특히 매출액은 1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였다. 분기 기준 최대 매출액을 기록한 지난해 3분기(66조9600억원)에도 근접했다. 영업이익도 9조원 안팎을 예상했던 시장 기대치를 넘어섰다.

연간 실적 전망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매출은 역대 최대치였던 2018년(244조원) 수준을 넘어 260조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영업이익도 50조원 가까이 올라가면서 2018년(59조원)에 근접할 전망이다.

LG전자도 같은 날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다. 1분기 매출액이 18조

8057억원, 영업이익이 1조517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매출(14조7278억원) 27.7%, 영업이익(1조904억원) 39.2% 증가했다. 매출액 18조원에 영업이익 1조원 수준을 예상했던 시장 기대치를 한참 넘어섰다.

매출액이 분기 기준 최대였던 전분기(18조7808억원)보다도 0.1% 늘어나며 다시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분기 기준 영업이익은 2009년 2분기(1조2438억원)를 넘어선 12년여만에 기록을 다시 세우게 됐다.

LG전자 역시 연간 영업이익이 4조원 안팎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 전망이다. 가전 사업이 호조를 이루는데다가, 하반기 만년 적자였던 휴대폰 사업을 접으면서다.

한편 양사는 조만간 1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부별 실적도 함께 소개한다. /김재용 기자 juk@

코로나 4차 유행 현실화 되나 신규확진 89일 만에 600명대

당국, 내일 거리두기 단계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87일 만에 600명을 넘어섰다. 4차 유행이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커졌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부터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9일 발표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68명을 기록했다. 해외 유입 확진자를 제외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653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월8일 이후 89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신규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1월10일 이후 87일 만이다. 특히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523.7명으로 이틀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한선인 500명을 넘었다.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는 324.6명으로 직전 주 대비 31.5명 증가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3차 유행이 감소하던 지난 1월10일 이후 석 달 만에 600명대를 기록했다”며 “4차 유행이 본격화하는 가능성이 차츰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4차 유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윤 반장은 “현재 4차 유행 초입에 들어섰는지 안 들어섰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4차 유행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며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4차 유행 억제에 위해 ▲필요하지 않은 모임 취소 및 만나는 인원 줄이기 ▲기본 방역수칙 준수 ▲예방접종 적극 동참 등을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세부 방역수칙을 논의 중이며 9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세경기자 seilee@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올해 들어서도 3개월 연속 인구 자연 감소
 ▲검찰 “정인이 입양모, 감정 조절 안 돼”…전자발찌 청구 /사진 뉴스스

▲홍남기, 60개국 재무장관에 기후변화 정책 강조…그린 뉴딜 소개
 ▲輿 “2·4 대책에 부동산 시장 안정…재보선 이후도 불변”



▲62명 사상자… 제주 버스 사고, 제주대 학생 다수 탑승 /사진 뉴스스
 ▲박의장 “동반자 관계” 우즈벡 대통령 “文, 형님이라 불러”